



3면
민주화운동의 '큰 별'
백기완 선생 영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음 1월 5일) 제27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박차

정부 시행 발표 따라

이달 말부터 요양병원 등 65세 미만 입소·종사자 대상 백신접종 실시
최초 백신은 'AZ'로
전문위 심의 결과 반영

전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백신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총 3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초 접종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로 식약처 권고 및 백신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미접종으로 인한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접종분에 대한 백신 공급량은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1차 대응요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도는 가장 먼저 정부의 계획에 맞춰, 도내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1만4,120명)



문 활짝 열린 전주동물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따라 전주동물원이 재개장한 15일 전주동물원의 정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의사의 방문접종, 기관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약 1만1,852명, 3월 8일 부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3,009명, 3월 22일 부터)은 지역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3월말 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를 토대로, 중앙의 백신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이 확정되면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종사

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수급되는 일정에 따라 권역센터 및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실시를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고창 전통 지주식 김 명품화

국내 0.1% 소량만 생산되는 '프리미엄'으로
서해안 최초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취득
도, 5-6월 중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

고창군 전통 지주식 김이 서해안 최초 '친환경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다. <관련기사 8면>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서'는 친환경 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어가별 생산 및 출하일자, 위생교육 수료 등 서류심사와 수질, 방사능·중금속 성분 검사 등 까다로운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고창 지주식 김은 원초 생산 과정에서 염산, 황성처리제 등 화학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어업인의 탐과 정성으로 관리되며 생산된다.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지정 지역인 고창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창 지주식 김은 국내 0.1% 소량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김이다.
1623년 시작된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 방법을 고수해 하루 평균 낚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밭을 노출 시켜 생산되며, 맛이 풍부하고 식감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고창군)는 마른 김 가공 공장 시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우량 김 종자 등을 지원해 도내 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6월 중 고창 지주식 김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 주력 품목인 김(마른김, 조미김)의 명품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고품질화로 김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



고창 지주식김 수확현장 (사진=전북도청 제공)

자율주행 로봇으로 팔복동 산단 대기환경 실시간 감시



이동형 로봇 측정기

전주시, 5G 기반 스마트 대기환경 서비스 시범 운영
로봇 6대·고정형 대기 측정기 20대 설치 내달부터 시행

자율주행 로봇이 팔복동 산단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단과 인근 주거지역인 만성·혁신지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대기환경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IG유플러스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해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관리

하는 게 목적이다. 시와 IG유플러스는 팔복동 산단과 만성·혁신지구에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 측정기 20대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대기환경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시스템에 정보를 보내 대기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화재나 연기 등을 감지하는 등 무인 순찰을 진행해 사고 방지 역

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실시간 대기환경 감시는 물론이고 기상상황과 계절별로 축적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특이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고 공기질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북지환경국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과 고정형 대기 측정기의 대기환경 데이터를 통해 산단과 인근 주변지역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주민이 모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상 기자

군산 부근서 규모 2.5 지진 발생

동북동쪽 10km 지역에

15일 군산 부근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9분 25초경 군산시 동북동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5.99도, 동경 126.84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4km다.

지진의 세기는 전북에서 최대 4로 기록됐다. 이 경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며 일부가 잠에서 깨는 수준이다. 그릇, 창문 등도 흔들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군산=환경봉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